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3. 6. 2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미 주

○ 美, 대선에 앞서 '외로운 늑대형 테러' 증가 경고

- 5.28 외신은 오는 '24년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조직화된 단체보다 극단주의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은 개인이 '외로운 늑대형 테러'를 자행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도

※ 미국에서 우익 테러리즘 지지자들의 공격은 '16년 이후에 급증하였는데, 소셜미디어 등이 발달하면서 개인에게 급진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분석

○ 美, 연임에 성공한 튀르키예 대통령에게 '스웨덴 NATO 가입 찬성' 요구

- 5.30 외신은 「바이든」 美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한 「에르도안」 튀르키예 대통령에게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(NATO) 가입 찬성을 요구했다고 보도

※ 스웨덴은 7월 NATO 정상회의 전까지는 가입하겠다는 입장이며, 미국도 이를 적극 지지하며 튀르키예와 헝가리 정부를 설득중

유 럽

○ 獨, 교회 겨냥한 테러음모 혐의로 시리아 형제 2명 체포

- 5.25 언론은 지난 23일 독일 경찰이 스웨덴 교회에 대한 폭탄테러 공격을 모의한 시리아 국적 형제를 체포하였으며, 이들의 거주지에서 다수의 폭탄제조 화학물질을 증거품으로 수거했다고 보도

※ 스웨덴의 교회를 목표로 삼았으며, 인터넷을 통해 폭탄제조에 필요한 화학물질을 구입

○ 英, ISIS에 가담한 영국인에게 '종신형' 선고

- 5.26 외신은 지난 '14년 8월경 영국에서 시리아로 건너간 뒤 ISIS에 가담하여 각종 테러 등을 준비한 「샤바즈 술레먼」(27세)에게 영국 법원이 '종신형(최소 9년 6개월 복역)'을 선고하였다고 보도

※ 同人은 튀르키예에서 휴가중 국경을 접한 시리아로 이동하여 ISIS에 합류

아 · 태평양

○ 인도, ISIS 테러단체 추종자 3명 체포

- 5.27 언론은 인도 경찰이 자발프루 지역에서 테러 조직원 모집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ISIS 선전 자료를 유포하고, 테러 공격을 위한 무기와 탄약 조달을 시도하던 테러단체 추종자 3명을 체포했다고 보도
- ※ 체포 당시 보유하고 있던 무기, 탄약, 디지털 장치 등도 압수

중 동

○ 리비아, ISIS 조직원 23명 '사형' 선고

- 5.29 법원은 ISIS 가담 및 살인 혐의로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23명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고, 또 다른 14명의 전직 ISIS 대원에게는 무기징역을, 그 밖의 다른 14명에 대해서는 3~12년의 징역형을 선고
- ※ 기타 5명은 무죄, 다른 3명은 판결 전 사망

○ 이란, 40년 양숙 이집트의 관계 개선 신호 환영

- 5.30 외신은 「알리 히메네이」 이란 최고 지도자가 「빈 타리크 알 사이드」 오만 술탄과의 회담에서 최근 이란과의 외교관계를 재개하려는 이집트의 열망을 환영했다고 보도
- ※ 수니파가 주류인 이집트와 시아파 중심의 이란은 양숙 관계였으나, 지난 3월 사우디와 이란의 관계 정상화에 따라 아랍지역 긴장완화 분위기 고조

아프리카

○ 다국적 연합기동부대(MNJTf)*, ISWAP 조직원 55명 이상 제거

- 5.31 언론은 다국적 연합기동부대가 테러단체의 영향력 차단을 위해 5.6~28 아바담주 등 나이지리아 접경지역에서 대테러 작전을 수행, ISIS 서아프리카지부(ISWAP) 최고 사령관 등 55명 이상을 제거했다고 보도
- * 아프리카 중부 및 서부에서 보코하람 세력 및 테러리즘 확산 저지를 위해 카메룬, 차드, 니제르, 나이지리아 4개국이 결성한 다국적 연합부대

이스라엘, 텔아비브 나이트클럽 자살폭탄 테러

- '01.6.1 이스라엘 최대도시 텔아비브 시내의 나이트클럽 앞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 21명이 사망하고 약 120명이 부상
 - 테러범은 피해 극대화를 노리고 안식일 휴가 기간에 폭탄 테러를 감행
- 사건 직후 이스라엘은 모든 팔레스타인 지역을 즉각 봉쇄하였으며,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하마스 등 무장단체 조직원 체포를 요구
 - * '01.5.31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 휴전을 선언하였으나, 同 사건 직후 휴전 선언 철회
 - 한편,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 이슬람 지하드는 同사건은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발표하였으나, “누구든 이스라엘의 점령에 저항할 권리가 있다”며 테러행위를 옹호
- 이번 테러는 팔레스타인의 '제2차 인티파다*(intifada·민중봉기)' 이후 발생한 최악의 테러 사건으로 평가
 - * '00.9월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향해 이스라엘 측이 발포한 사건으로 촉발되어 팔레스타인 전역으로 확산된 공격적인 성향의 반이스라엘 운동

테러 단체

< 하마스(HAMAS) >

- (결성) 이집트 '무슬림 형제단'의 팔레스타인 지부 소속 강경세력들이 1987년 제1차 '인티파다' (對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민중봉기)를 계기로 결성
 - ※ 테러단체 지정 : 미국('97.10), 영국('01.3), 캐나다('02.11)
- (연계세력)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(PIJ), 인민저항위원회(PRC)
- (핵심인물) 이스마일 하니예(최고 지도자, 62년생)
- (활동지역) 팔레스타인 가자, 서안지구 및 레바논內 팔레스타인 난민캠프 등
- (활동수법) 이스라엘 軍·民 대상 폭탄테러·총격·로켓공격·납치
- (주요테러)
 - '08.12~'09.1 이스라엘軍과 하마스간 '가자전쟁' 발발, 800여명 사망
 - '19.5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(PIJ)와 연계하여 이스라엘을 겨냥한 로켓 700여발을 발사(사망 4명, 부상 80여명)